

삼바 파업 찬반 투표... “진짜 결정권자 나와라”

삼성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지부는 24일 낮 12시부터 3월29일 오후 6시까지 쟁의 찬반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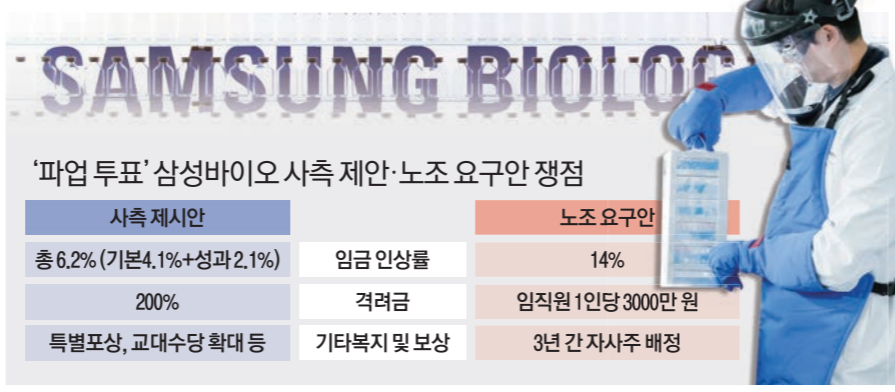
노조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쟁의 찬반투표가 통과되면 4월7일 노동조합 총회를 개최하고 4월21일 오프라인 집회 및 시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총 파업은 5월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25년 매출 4조 5570억 원과 영업이익 2조692억 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이에 따라 직원들의 보상 요구도 커졌고 임금단체협상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평균 13% 수준의 임금 인상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해 인사문건 유출에 대한 책임자 조치와 단체 협약 보완 등을 요구했다.

사측은 임금 △6.2% 인상 △격려금 상여 기조 200% 지급 △OPI 재원 EVA 20% 영업이익의 10% 선택 특별 포상 지급에 더해 각종 복리후생을 제시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는 13차례 교섭을 진행했고 3월10일과 3월20일 대표이사와의 만남까지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23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가 조정



‘파업 투표’ 삼성바이오 사측 제안·노조 요구안 쟁점

사측 제시안	노조 요구안
총 6.2% (기본 4.1%+성과 2.1%)	임금 인상률 14%
200%	격려금
특별포상, 교대수당 확대 등	기타복지 및 보상
	임직원 1인당 3000만 원
	3년 간사주 배정

13차례 교섭·2차례 대표이사 교섭에도 타결 못 해 노조 “준립 대표는 삼성전자 사업 지원실 허수아비” 파업 찬성 편 내달 7일 노조 총회... 5월 중 돌입할 듯

중지 결정을 내렸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24일 오전 8시 전자 메일로 발송한 소식지에서 준립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가 20일 독대 자리에서 “나는 65세 커리어 끝자락에 내 연봉은 줄었다”라며 “나는 이제 무서울 게 없다”고 말하는 등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이에 대해 준립 대표이사가 교섭 권한이 없으며 삼성전자 사업 지원실의 허수아비임을 증명했다고 주장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회사의 최종 안은 삼성전자 수준에 맞춘 대본일 뿐 자체적인 교섭 의지가 전무했다”라며 “이에 우리 조합은 진짜 결정권자를 끌어내고 온전한 자율적 교섭을 쟁취하기 위해 쟁의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사업 지원실은 사업 지원 TF가 지난해 11월 정규 조직으로 재편되면서 출범한 조직이다. 사업 지원 TF는 삼성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알려져 있다. 2024년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파업 당

시 노조는 사업 지원 TF와 당시 사업 지원 TF의 수장이었던 정현호 삼성전자 부회장을 삼성그룹의 ‘실세’라고 지목한 바 있다. 정현호 부회장은 사업 지원 TF가 삼성 사업 지원실로 재편되며 회장 보좌역으로 이동하고 박학규 사장이 사업 지원실장으로 부임했다.

삼성 초기업 노조는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 독립경영 침해 및 불법적 노사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사업 지원 TF의 월권 행위를 조사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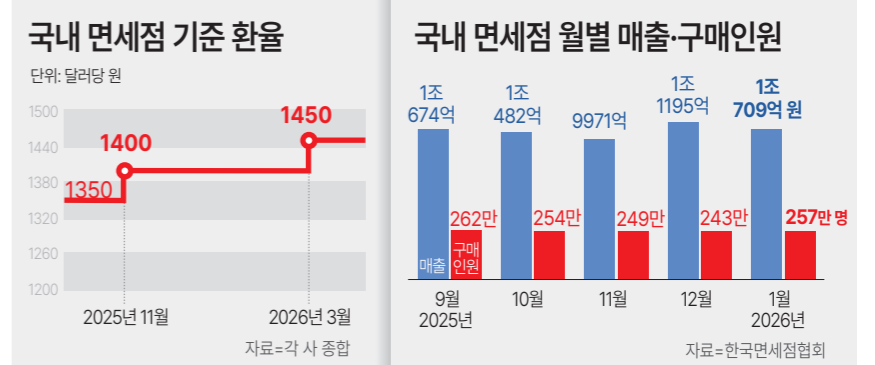
또한 최근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며 하청 노조가 실질적 근로 조건을 결정하는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되면서 삼성그룹 내 노사 협상 구조에도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 관계자는 스카이에일리아와 통화에서 “최근 대법원이 성과급의 일부를 퇴직금에 넣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을 때도 사업 지원실에서 문서가 내려와 각 계열사로 전파됐다”라며 “사업 지원 TF가 사업 지원실로 격상된 이후에도 구조는 비슷하다고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가격 vs 수익’ 딜레마에 빠진 면세업계

환율 1500원 시대... 면세 가격 ‘역전’ 현실화



원·달러 환율이 1500원선을 넘나드는 고회환을 국면이 이어지면서 국내 면세업계가 가격 정책 조정에 나섰다. 가격 경쟁력 유지를 위해 사실상 ‘가격 인하’ 효과를 내는 조치를 택했지만, 동시에 수익성 악화 부담까지 떠안는 ‘양날의 선택’에 직면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이날부터 국산 브랜드에 적용하는 기준환율을 기존 1400원에서 145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신라면세점과 현대면세점도 25일부터 동일한 수준으로 기준환율을 인상한다.

기준환율은 면세점이 원화로 매입한 상품을 달러 판매가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환율이다. 기준환율이 올라가면 달러 기준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1만4000원짜리 상품은 기준환율 1400원일 때 10달러지만, 1450원을 적용하면 약 9.66달러로 낮아진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같은 상품을 더 저렴하게 구매하는 셈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급등한 환율에 따른 ‘가격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원화 약세가 심화되면서 면세점 달러 가격이 유지되더라도 원화 기준 체감 가격은 상승해 백화점보다 비싸지는 사재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원·달러 환율은 최근 장중 1510원을 돌파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까지 상승했다.

면세업은 구조적으로 환율에 민감하다. 상품을 달러로 매입하고 원화로 판매하는 구조인 만큼 환율이 오르면 매

입 원가가 즉각 상승한다. 동시에 가격 경쟁력은 약화돼 수요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업계는 기준환율 조정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려는 전략을 택했다.

다만 이 같은 조치는 수익성 측면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국산 브랜드의 매입 가격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달러 판매가 낮아질 경우 마진 축소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환율 상승이 지속될 경우 가격 경쟁력과 수익성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환율 변동은 면세업계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일부 사업자는 환율이 일정 수준 변동할 경우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 규모의 손익 변화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달러 결제 기반의 직매입 비중이 높은 구조상 환율 상승은 곧바로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

그럼에도 업계가 기준환율 인상에 나선 것은 더 이상 가격 경쟁력 약화를 방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최근 내국인 수요 회복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만, 고회환이 지속될 경우 소비 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외국인 관광객 증가는 긍정적 요인으로 꼽힌다. K콘텐츠 확산에 힘입어 방한 수요가 늘면서 면세점 이용객도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업계는 환율 리스크에 대응하는 동시에 프로모션과 서비스 차별화를 통해 수요를 유지하는 전략을 병행하고 있다.

김나윤 기자 nykim@skyedaily.com

LG유플러스 주주총회 개최... 여명희 사내이사 재선임

매출 15.4조·배당 660원 확정... 데이터센터 사업 목적 추가 집중투표제 적용·분리 선출 감사위원 1명→2명으로 상향

LG유플러스는 서울 용산 사옥에서 제30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재무제표 승인 △정관변경 승인 △이사의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이사의 보수 한도 승인 등 6개 안건이 원안대로 승인됐다.

우선 2025년 매출 15조4517억 원, 영업이익 8921억 원, 당기순이익 5092억 원의 재무제표를 승인했다. 기말 배당금의 경우 보통주 1주당 410원을 현금 배당해 연간 배당금은 총 660원으로 확정 지었다. 이사

의 보수 한도는 전년과 동일한 50억 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정관에는 데이터센터 DBO(설계·구축·운영) 사업 본격화를 위해 사업 목적 사항으로 ‘데이터센터 설계, 운영, 구축 관련 운영 및 이 사업과 관련되는 일체의 용역 및 공사업’을 추가했다.

또한 상법 개정에 따라 일부 정관들이 변경됐다. 이사 선임 과정에서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없게 되며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용 정관에서 삭제했고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했다.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정관에 포함됐다.

LG유플러스는 2023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여명희 LG유플러스 최고 재무 책임자(CFO) 겸 최고 리스크관리 책임자(CRO)를 사내이사로 선임했다.

여명희 CFO-CRO(부사장)는 2023년에 CFO-CRO로 보임해 재무 관련 최고 책임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역할을 인정받아 사내이사로 재발탁됐다.

기타 비상무이사에는 이상우 LG 경영전략 부부장(부사장)이 선임됐다. 이상우 부문장은 LG전자 HE경영전략 담당, TV사업



홍범식

운영 센터장을 거쳐 2023년부터 LG에서 전자팀장, 경영관리부문장을 역임하는 등 LG그룹의 안정적 사업 운영에 기여해왔다.

풍부한 사업 실무 경험과 전략적 통찰력을 바탕으로 주요 경영 활동에 기여하고 LG 계열사들과의 시너지를 통해 중장기적 성장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으로는 엄윤미 재단법인씨앗 등기이사와 송민섭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선임됐다.

홍범식 LG유플러스 사장은 주주총회에서 “더욱 단단한 신뢰를 기반으로 고객과 함께 성공 경험을 축적하고 그 성공을 확장해 나가는 한 해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사람 중심 휴먼브랜딩
심성으로 만들어 갑니다

진심 담은 이야기로 마음을 브랜드하다

SkyDaily
변화의 본질을 담아, 내일의 브랜드 이끌다
심성브랜드연구소